

[제주잠녀]시름시름 앓는 바다에 가슴앓이

발로 달는 제주잠녀의 삶-환경면 판포리

등록 : 2006년 12월 10일 (일) 16:49:25
최종수정 : 2006년 12월 10일 (일) 16:49:25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 노린(너른)빌레-판포 바다에서 가장 비옥한 바다밭이다.

12월에 접어든 제주 바다는 짙푸른 색갈만큼이나 매섭고 칼 같은 바람이 가슴을 먼저 친다. 소라 금채기가 지나고 조금씩 물질 작업이 시작될 때지만 잠녀들의 발길은 바다 보다 물의 발이 먼저다.

환경면에서 가장 마지막에 찾은 판포리 역시 다른 마을들과 마찬가지로 시름시름 바닥을 드러내는 바다밭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한 10년 뒤에도 잠녀들이 남아있을까...”

판포는 남음, 명월과 더불어 ‘잠녀’가 없는 마을로 불렸다.

올해로 6년째라는 김일택 어촌계장(47)도 “양반동네라고, 예전에는 물질을 하려면 동네를 빙돌아 바다로 나가는 등 숨어서 다녔었다”며 “지금도 판포 출신 잠녀는 손으로 꼽을 정도고 다른 지역에서 시집을 온 잠녀가 많다”고 말했다.

직접 물질을 하는 ‘고무뚝을 입는’ 잠녀는 30여명, 전직 잠녀를 포함한 44명 중 제일 막내인 양경장씨(41)도 이웃마을 월령 출신이다. 상군으로 지난해 가장 많은 수익을 올렸다는 김진희씨(56)는 동쪽 출신이라고 했다.

60만9000㎡의 비교적 넓은 바다를 보유한 판포는 5개 자연 마을이 수머리 바닷·너머·세불악·정선이내선코지 등의 바다를 암암리에 나눠 썼을 정도였다고 했다. 한참 미역 시세가 좋았던 1950년대 즈음에는 한원리 등 중산간 마을 사람들에게까지 바다를 열어줬다.

1978년 법인 어촌계가 비법인 어촌계로 전환되면서 그때까지 ‘판금어촌계’였던 판포와 금등 어촌계가 분리된다.

아직까지 어촌계 회관을 확보하지 못한 탓에 판포어촌계의 자료는 판포 감귤선과장 한 구석 서류보관함에 차곡차곡 정리돼 있었다.

그랬던 판포 바다 역시 ‘물건’이 사라진지 오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관리인을 지정, 조류를 타고 밀려온 감태를 판매했었는데 갈수록 수익이 나지 않자 올해는 서로 안하려고 미루다 판매 자체를 포기했다. 여기에 내년부터 서부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된다면 바다가 얼마나 어떻게 변할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더 이상의 종패 사업 등을 고민하기 보다 어촌계 회관을 짓는 등 별도의 수익사업을 계속해 고민하고 있다.

잠녀 양경장씨는 “노린빌레에 소라와 전복 종패를 뿌리는 등 공동 양식장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예전만 못해진지 오래”라며 “이 상태라하면 10년도 채 되기 전에 잠녀가 다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잠녀를 찾아 ‘밭으로’

판포 바다 중 가장 비옥한 노린(너른)빌레 인근에는 채취한 소라를 팔기 직전까지 모아두는 곳이라는 70년대 시설물이 아직도 튼튼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바다에 서툰 이의 눈으로도 찾을 수 있을 만큼 노린빌레 인근에는 여기저기 한창 때의 툫이 보인다.

마을과 공동작업을 하는 툫도 요즘은 시세가 많이 떨어져 지난해 수수료를 제외하고 하루 3600원 남짓이 손에 들어왔다고 했다.

3년 동안 30만미나 뿌렸던 전복 종패도 거의 거뭇물이지 못했다.

김일택 어촌계장은 “수산연구소 등에서는 3~5cm의 작은 전복이 생존율이 더 높다고 얘기하는 반면 잠녀들은 어느 정도 자란 전복이 더 잘 자란다고 말한다”며 “어느 것이든 처음에는 잘 적응하는 듯 싶다가 갈수록 생존율이 떨어지는 등 바다가 많이 망가진 것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자부담으로 의욕적으로 시도했던 홍해삼 종패 사업 역시 수확도 하기 전에 ‘실패했다’는 자조적인 말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툫 운반을 위한 1km남짓한 해안도로도 부서간 이견으로 흐지부지되는 등 앞이 보이지 않는 바다에 대한 이곳 잠녀들의 희망은 점점 퇴색되고 있었다.

